

## 광주서 제작 '임 행진곡' 미얀마에 올려퍼진다

광주시민·미얀마인들 1절 한국어·2절 미얀마어로 불러  
유튜브·온라인 통해 전 세계에 송출 ... 연대 투쟁 호소

“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 한평생 나가자  
던 뜨거운 맹세... (종락)... 세월이 흘러가도 산천은  
안다... (후략)” 24일 오전 광주시 동구 5·18민주광  
장에서 재한 미얀마인 광주대표 모네자(39)씨가 무  
반주로 ‘임을 위한 행진곡’ (이하 임 행진곡)을 부르  
기 시작했다.

이날 모네자씨와 광주 시민들이 미얀마의 민주화  
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목놓아 부른 ‘임 행진곡’은  
영상으로 제작돼 미얀마 민주화운동이 벌어지고 있  
는 현실에 올려 퍼진다.

‘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  
대’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의 학살 행위를 규탄하  
고,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화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동  
영상을 제작에 들어갔다.

이 영상은 1980년 5·18 당시 광주의 모습과 현재  
미얀마의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며, 광주가 5·18로  
민주화를 이끌어 낸 점과 광주 시민들이 미얀마에  
연대하고 있다는 마음을 담아 미얀마 국민들에게  
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. 광주의 모든 시민  
들이 5월 정신으로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  
한 열망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각  
계의 구성원들이 이번 영상 제작에 참여한다.

그동안 홍콩, 대만, 태국 등에서 반군대 노동운동  
과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불리던 임 행진곡은 이미  
미얀마 민주화운동 현장에서도 불려지고 있다.

이번에 제작되는 영상은 5·18 항쟁의 상징인 옛  
전남도청 앞 5·18민주광장에서 시작한다.  
먼저 현재를 살고 있는 광주의 모습에서 오후 5시



“세이브 미얀마” 24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시 동구 5·18민주광장에서 재한 미얀마 광주대표와 이용섭 시장 등 광주를 대표하는 각계 구성원들이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영상을 촬영하면서 ‘임을 위한 행진곡’을 부르고 있다.

17분 57초에서 58초로 흘러가던 시간이 되감기 된다.

1980년 5월 “비상계엄을 해제하라”며 민주화를 촉  
구하고, 연일 햇볕행진을 벌이며 ‘독재 타도’를 부르  
짖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. 피

의 대가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그날로 돌아가 당시

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.  
이후 영상은 바로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시위  
와 군부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는 현재의 상황으

로 이어진 뒤, 미얀마 현재와 5·18 당시 광주의 모  
습을 교차로 오가다가 결국 광주가 민주주의를 쟁  
취한 역사를 보여 줄 예정이다. 미얀마에 희망을  
준다는 의도이다.

다시 시계바늘은 현재로 돌아와 오후 5시 17분  
59초에서 5시 18분 정각으로 흐르고, 민주광장 시  
계탑에서는 한변의 종소리와 ‘임 행진곡’이 울린다.  
이어 민주광장에 홀로 선 모네자씨는 “미얀마와  
함께 해주세요”라는 패널을 들고 무반주로 임 행진  
곡을 부르기 시작한다. 이후 모네자씨를 중심으로  
광주의 각계 대표들이 음악과 함께 모네자씨와 어울  
려 행진곡을 부르며 모네자씨의 주변을 둘러싼다.  
미얀마 민주화운동이 자신들만의 외로운 투쟁이  
아니라면 곳에서나마 광주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 
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.

광주를 대표하는 각계 인사들로는 이용섭 광주시  
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부터 천주교·기독교·불교·원  
불교 등 종교계 대표와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여했  
다. 더불어 장애인·노동계·여성계·교육계를 대표하는  
인사들까지 총 99명이 이날 영상촬영에 함께 했다.

영상은 미디어협동조합 ‘찰나’와 지역 영화감독·  
음악인 등이 협력해 제작을 맡았다. 임 행진곡은 1  
절은 한국어, 2절은 미얀마어로 불려지며, 다음주  
께 제작 완료로 목표로 하고 있다. 제작이 완료된  
영상은 미얀마 민주화운동 측에 전달될 예정이며,  
유튜브 등 온라인에 게재해 전세계에 송출해 미얀  
마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호소할 예정이다.

한편,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‘세 손가락’  
은 ‘우리는 정의를 원한다’는 의미를 담고 있다. 독  
재에 저항하고, 대의를 위해 희생한다는 의미로 미  
얀마 시위대를 하나로 묶는 행위로 자리 잡았다.  
/정병호 기자 jusbh@kwangju.co.kr

## 한전공대법 국회 통과... 대학 설립 본격화

‘부영 특혜’ 의혹 불식 위해  
개발이익 추가 환수 등 대책 필요

‘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’(한전공대 특별법)  
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대학 설립이 본격화됐  
다. 하지만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한 부영 측에서  
진행하는 개발사업이 특히 논란을 빚는 만큼 향후  
‘부영 특혜’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토지 개  
발에 따른 이익금 추가 환수 등 전남도와 나주시의  
체계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.

Passion [열정], Vision [꿈], Truth [진리] 로 충만한  
기독교명문대학  
**광신대학교** 로 오십시오!!  
입학문의 학부 062)605-1114 대학원 605-1115

〈관련기사 3편〉  
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공대의 원활한 개교  
를 위한 법률인 한전공대법이 통과했다. 제석의원  
219명 중 찬성 149명, 반대 6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 
넘었다. 민주당 신정훈(나주·화순) 국회의원이 대  
표 발의한 한전공대법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‘한  
국전력공과대학’을 ‘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’로 변  
경하고,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  
해 정부와 지자체,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 
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.

법안 통과와 함께 정부가 곧바로 시행령을 공포  
하면 당장 학교법인 한전공대 측은 오는 5월 3일  
이전까지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수시모집과 캠퍼  
스 착공 작업에 나서게 된다. 특히 현행법 체제  
에서 학교 건물 준공 지연에 따라 학교 설립 절차

이홍재의 세상만사 ▶2면  
오늘 축구 한·일전 - 이강민·정우영 주먹 ▶18면

에 차질이 제기됐지만 한전공대법 통과 가능성이  
커지면서 학생모집 등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가능  
해질 전망이다.

반면, 이날도 국민의힘 김태흠(충남 보령서천)  
국회의원이 반대 토론을 통해 ‘대학 진학을 하락  
속에서 신규 대학 신설, 특정 기업의 개발행위 특  
혜’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. 또한 민  
주당 내에서도 “부영 특혜가 LH발 부동산 문제로  
연결될 수 있다”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전남  
도와 나주시에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했다.

한편, 한전공대는 광주·전남 공동혁신도시 부영  
골프장 및 인근 농경지 120만㎡에 들어선다. 대학  
부지 40만㎡(교사 14만㎡), 연구소 및 클러스터  
부지 80만㎡ 규모다. 2025년 전학년 편제 완성 시  
대학원생 600명, 학부생 400명이다. 교수 100명,  
직원 100명이다. 에너지공학과 단일 학부다. 설립  
·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5년까지 총 8289억원  
으로 추산된다. 부지 조성비, 건설비, 인프라도 도  
입비 등 설립비 6210억원은 한국전력이 부담한  
다. 연간 641억원의 운영비는 한전과 정부, 지사  
체 등이 부담한다. 전남도와 나주시는 연 100억원  
씩 10년간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.  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##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 5·18 민주묘지 참배

“민주주의 바로 세우겠다”

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인 광주를 찾아 국립 5·18 민주묘  
지를 참배했다. 지난해 8월 보수정당 대표로서는  
첫 ‘무릎 사죄’ 이후 두 번째이며, 취임 후 세 번째  
광주 방문이다. 특히, 이번 방문은 4·7 재보선 서  
울시장 단일후보를 오세훈 후보로 확정된 뒤 첫 공  
식일정이라는 점에서 배정에 관심이 쏠렸다.

〈관련기사 3편〉  
김 위원장은 5·18민주묘지 방명록에 “5·18 정신  
으로,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”라고  
썼다. 참배 후 기자들의 광주 방문 의미에 대한 질  
문에 “작년 8월에 다녀간 뒤 국민의힘에서 거의 임  
무를 마쳐가는 과정”이라며 “내일이면 (4·7) 선거  
가 시작된다. 선거가 끝나기 전에 한번 다녀가야  
한다고 생각해 광주를 찾았다”고 말했다.

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4·7 재보궐선  
거를 앞두고 서울 유권자 중 호남 출향민들의 표심

을 잡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보고 있다. 하지만 일  
부에서는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과 한전공대 특별  
법 통과를 약속해놓고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  
분에 대해 ‘진정성’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.

국민의힘은 이날 국립 5·18 묘지 참배에 이어 김  
대중컨벤션센터에서 5·18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었  
다. 김 위원장은 “광주의 합성 덕분에 오늘날 우리  
나라의 민주주의가 견고하게 발전해오지 않았다”  
라며 “5·18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누구도 부정  
할 수 없는 사실로 확정돼있는 사항”이라고 강조했다.  
이어 “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당시 광주 민주화  
운동의 합성에 맞게 제대로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  
해 매우 회의적”이라며 “광주의 정신을 다시 살려  
훼손되어가는 민주주의가 정상적 상황으로 발전하  
는 데 당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”고 했다.

5·18 단체는 국민의힘 측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  
서도 여야 합의로 공법 단체 설립을 허용한 5·18  
관련 법안에 대해 보완 입법을 주문했다.  
/최권일 기자 cki@kwangju.co.kr

**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**

해양치유,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

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!